



여자 50m 소총 3자세, 만리장성 넘어 金 겨냥하다



사격대표팀 정미라(화성시청), 유서영(한체대), 김설아(봉림고), 김병채 코치(원곡부터), 11일(한국시간)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제51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여자 50m 소총 3자세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일군 이들은 인천아시아게임에서 중국의 아성에 도전한다.

세계선수권 사상 첫 메달 이어 AG 금 도전

사격강국 중국에 불과 3점차로 아쉬운 3위 단체전 정미라·유서영·김설아 자신감 얻어 “인천에선 꼭 중국 꺾고 금메달 건다” 다짐

성인선수가 불과 30명뿐인 한국 여자 50m 소총 3자세는 얼마 전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2014인천아시아게임에서 상대할 ‘사격 강국’ 중국과의 점수차는 불과 3점이었다. 등록선수가 한국보다 1000배나 많은 중국이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앞두고 충분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11일(한국시간) 스페인 그라나다 후안 카를로스 1세 올림픽사격장에서 열린 제51회 세계사격선수권 여자 50m 소총 3자세 단체전에서 정미라(27·화성시청)-유서영(19·한체대)-김설아(18·봉림고)로 구성된 한국은 합계 1735점으로 3위에 올랐다. 1위는 세계기록을 경신한 독일(1750점), 2위는 중국(1738점)이었다. 한국의 여자 50m 소총 3자세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국 여자 50m 소총 3자세는 인천아시아게임에서 중국의 아성을 넘어야 한다. 사격대표팀 김병채(55) 코치는 “객관적으로는 우리의 전력이 중국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선수들이 확실히 자신감을 얻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라

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한국 사격의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린다. 우선 지원부터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사격을 전략종목으로 육성해왔다. 자연히 저변도 넓다. 사격대표팀 윤덕하(60) 감독은 “중국의 등록선수는 300만명 이상이라고 들었다. 반면 우리는 3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선수 규모에서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여자 50m 소총 3자세에선 격차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김 코치는 “한국에서 50m 소총 3자세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일반부 여자선수는 30명에 불과하다. 중국에는 우리 국가대표 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수천 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유서영, 김설아 등 국제대회 경험이 적은 10대 선수들이 세계선수권에서 본전한 점이다. 김 코치는 “10m 공기소총과는 달리 50m 소총 3자세는 선수 육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기본적으로 거리가 먼데다가 장비도 많고, 3가지 자세를 모두 숙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 4~5년 정도는 잡아야 좋은 선수를 키울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제 몫을 해준 유서영과 김설아는 2년 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선수”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만언니 정미라는 “동생들과 함께 얻은 성과라 더 영광스럽다. 인천에선 꼭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고 다짐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김준홍 세계선수권 남자 25m 속사권총 금메달

김준홍(24·KB국민은행)이 14일(한국시간)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제51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남자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33개의 히트(Hits)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상학(kt 코치)이 웰드컵에서 입상한 적은 있지만, 한국사격이 세계선수권에서 이 종목 메달권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김준홍의 우승으로 이번 대회에서 5번째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쿼터를 획득했다.

남자 25m 속사권총은 사격에서도 가장 역동적 종목으로 꼽힌다. 본선(60발)에선 8·6·4초 만에 5발을 각각 2시리즈씩(총 30발) 쏘아, 이들의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5발을 각기 다른 5개의 표적에 쏘기 때문에, 선수는 몸을 돌리거나 총을 움직이며 격발하게 된다. 단 4초 만에 “탕, 탕, 탕, 탕, 탕.” 민첩한 이 모습은 마치 서부개척시대의 총잡이를 연상시킨다.

본선 점수 상위 6명은 결선에 진출한다. 결선에선 4초 만에 5발씩(1시리즈)을 거듭하며, 점수 합산이 아니라 히트의 합산으로 순위를 가린다. 히트란 9.7점 이상을 명중한 것을 말한다. 우선 4시리즈(20발)를 진행한 뒤 6위를 떨어뜨리고, 이후 1시리



김준홍(KB국민은행)이 14일(한국시간)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제51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남자 25m 속사권총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시상대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손상원 감독

즈를 마칠 때마다 최하위를 사선에서 제외한다. 김준홍은 8시리즈(40발)까지 33개의 히트를 기록하며 올리베르 가이스(독일·히트 30개)를 제쳤다. KB국민은행 손상원 감독은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것이 장점인 선수다. 인천아시아게임에서도 개인·단체전을 모두 노려볼 만하다”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포화 속으로 ‘평화의 골’ 쏘다

러브 인 아시아

남자축구 조별리그서 2-0 오만 꺾어 이번 FIFA 인프라 지원 받고 AG 첫 승리 결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인접한 서아시아의 약소국이다. 웨스트뱅크로 불리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지중해 연안의 가자지구를 합쳐 전체 면적이 6000km² 정도이고, 총인구는 400만여명이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서안지구로 나뉘어 항상 정세가 불안하다. 이스라엘과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아 바람 잘 날이 없다. 요즘도 파바람이 인다. 포격과 공습, 보복으로 얼룩진 사태로 양측의 사망자가 오래 전 1000여명을 넘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유엔(UN)을 중심으로 한 주요 인사들뿐 아니라 교황청까지 나서서 즉각적이고 조전 없는 휴전을 촉구하지만, 휴전은 일시적일 뿐 언제든 교전이 재개될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아시아 스포츠계에서 팔레스타인은 꽤 오래 전부터 동반자였다. 2014인천아시아게임에도 선수단을 파견했다. 1990년 베이징대회를 시작으로 7개 대회(인천 포함)에 개근했고, 2002년 부산대회 남자 복싱 라이트헤비급에선 동메달을 땀다.

물론 팔레스타인의 참가 자체가 주는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다.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빛내고 우정과 화합을 통해 평화 속에 찬란한 아시아의 미

래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겼다. 팔레스타인의 참가는 곧 화합이고,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런 팔레스타인의 이번 대회 첫 행보는 남자축구였다. 팔레스타인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인 ‘골(Goal)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왔다. FIFA 랭킹은 9월 현재 공동 88위.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14일 안산 와스타다움에서 열린 오만과의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2-0의 완승을 거뒀다.

팔레스타인은 일반적인 예상을 깨뜨렸다. 오만이 막강한 전력은 아니더라도 같은 조의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팔레스타인에 비해 한 수 위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경기 내용에선 열세였다. 볼 점유율(%)에서 45대55대로 밀렸고, 볼 점유시간에서도 40분으로 오만(49분)에 비해 적었다. 그럼에도 압달나세르 바라카 마리아 감독의 팔레스타인은 전반 39분 아메드 리다트와 후반 11분 모하메드 마라바의 연속골로 승리를 챙겼다.

더욱 특별했던 것은 이날 승리가 팔레스타인 축구의 아시안게임 출전 사상 첫 승리였다는 점이다. 팔레스타인은 2002년 부산대회부터 축구에 참가했지만, 승점 확보는 4년 전 광주우대회가 처음(요르단전 무승부)이었다.

팔레스타인 A대표팀은 5월에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 정상을 밟아 사상 처음으로 내년 1월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나서게 됐다. 총성과 포성으로 지친 자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팔레스타인 축구다.

인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행복은 Honda를 타고 온다
Take to the Road. Honda.

17년 연속(2003~2014)
한국인생애 가장 많이 타는
모터사이클 부문 1위 Honda CUB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있다, 슈퍼커브!

탁월한 연비
뛰어난 시동성
편안한 승차감
우수한 품질
+ 튼튼한 내구성

기술의 절정 - Honda 슈퍼커브

SUPER CUB! SUPER EVENT! 기간: 9월 1일 ~ 30일

1 타사 CUB차량 보상 판매 프로모션
타사 CUB 차량 보유 고객 중 SUPER CUB를 대체 구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 중인 중고 CUB 차량을 사내에서 15만원 비싼 가격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2 판매점 장기 시승 프로그램
Honda 모터사이클 전 판매점에서 SUPER CUB
장기 시승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3 1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 대상 카드사: KB국민, 삼성, 현대

* 자세한 사항은 딜러 및 소형판매점 문의 바랍니다.

모터사이클 딜러	강남 딜러	02) 507-5077	강북 딜러	02) 2272-5282	인천 딜러	032) 502-7777	광주 딜러	062) 527-5050	부산 딜러	051) 757-0321	
서울	영원점	02) 2851-2101	수원 권선점	031) 258-5877	부천점	032) 666-8871	창주 총점	043) 282-3071	대구 동구점	053) 961-2615	
강릉점	02) 484-5282	영등포점	02) 2876-2617	수원 팔림점	031) 233-5282	인천 남구점	032) 876-6580	창주 상점	043) 224-4989	대구 북구점	053) 365-4419
경북 수원점	02) 900-4455	은평점	02) 338-2756	부산점	051) 401-8899	경기도점	033) 328-5109	충주점	043) 852-4958	구미점	054) 473-0230
관악점	02) 878-5285	중랑점	02) 434-3595	울안점	031) 328-5109	원주점	033) 744-9446	포항점	054) 275-4451	안성점	051) 643-0146
구로점	02) 856-6671	영등포점	02) 854-5579	고양점	031) 964-3379	파주점	031) 845-5321	부산 금정점	051) 516-4501	창원 마산점	055) 285-3700
금천점	02) 854-5579	강남점	02) 745-7039	김포점	031) 988-2119	평택점	031) 651-4545	부산 사상점	051) 301-8190	마산 회원점	055) 296-2999
성북점	02) 420-5282	성남점	031) 753-8882	화성점	031) 366-1596	대전 동구점	042) 822-4319	울산 중구점	052) 235-6191	강릉점	053) 337-7008
소형 판매점											

※ Honda 소형판매점 소형 모터사이클을 취급합니다.
www.hondakorea.co.kr